



8일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연설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美대선 승리에 ‘한미동맹’ 한 목소리

與野, 바이든에 축하메시지 전해
‘한반도 평화구축’ 중요성 당부 등
정의당, 대북정책에 온도차

여야는 8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데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 메시지에서 여야는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정책에 힘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은 ‘Build Back Better’라는 선거 슬로건처럼, 위대한 미국을 더 좋게 세우시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에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항구적 평화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미국의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을 기대한다”며 바이든·해리스 후보 당선 소식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서 허 대변인은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한반도 역사에서 굳건한 군사·경제 동맹을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평화 동맹으로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로,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향해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울러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선 미국 국민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고 정의한 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70년을 함께 해 왔다. 앞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 나설 때 대한민국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바이든 후보 당선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후보 당선을 축하하며 “미 행정부가 교체되지만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멈춰 세우거나 심지어 되돌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 당시, 70년 만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만나 한반도 평화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된 바 있다. 이제는 미완의 북미 관계 개선 등에 중점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이행은 전세계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담대한 평화 프로세스가 멈춤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바다거북 먹이활동, 영상으로 만나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디지털기록보관소 서비스 확대·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의 영상자료와 출판물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디지털기록보관소’ 서비스를 확대·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기록보관소를 개관했지만 해양생물자원관의 내부 연구용 사진과 정기 발행물만

볼 수 있는 등 일반 국민을 위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사진과 영상자료를 확충했다.

이에 따라 모두 264건의 해양생물 사진 자료와 26건의 영상자료를 확보해 게시한다.

특히 해양보호생물인 바다거북, 기수갈고동 등 7종은 서식지, 분포 현황, 형태와 생태 특성, 먹이 활동 과정 등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용수 기자

58억 규모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고용부, 정부 40억 투자자 18억
운용사에 ‘임팩트스퀘어’ 선정

고용노동부는 총 58억 원 규모의 제6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제6호 투자조합은 지난해 청산된 제1호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을 활용해 재출자한 정부예산 40억 원과 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 및 개인투자자 등이 18억 원을 출자해 결성됐다.

이번 투자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나 사회적경제기업 등

에 투자하는 사업인 임팩트 비즈니스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임팩트스퀘어가 운용사로 선정돼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초기자금(seed money)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33개를 대상으로 총 213억 원을 투자했으며, 투자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이상 활용돼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통해 조성된 자금의 60% 이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되고, 40% 미만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된다. 이번 투자조합은 기업당 최대 투자금액을 5억 원으로 설정해 10개 내외의 성장 가능성이 큰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에 정책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가균형발전 정책 논의, 지역혁신 사례 공유 장 열린다

내일 균형발전박람회 온라인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월9일~12일까지 나흘간,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역균형 뉴딜, 새로운 희망!’이라는 구호 아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지역균형 뉴딜 정책이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소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 온라인 지역균형 뉴딜 전시관 ▲ 정책박람회 ▲ 시민참여마당을 구성해 현장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준비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요 내용은 사전 녹화했고, 실시간 온라인 중계강연 등은 강연자 등 필수 관계자만 현장에 참석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산

업부는 전했다.

지역균형 뉴딜 전시관은 17개 광역시·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는 수소 클러스터, 스마트시티 등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사례를 홍보하는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개최지 청주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5G 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래산업의 중심 청주’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미래를 보여준다.

충북의 경우 태양광 에너지로 그린 뉴딜을 구체화하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관광과 치유의 플랫폼을 구현, 안전망 강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정책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2020: 지역주도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강연이 실시간 온라인 중계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 관련 학회와 특별 세션들도 열린다.

/한용수 기자

가습기살균제 등 인체유해 화학물질 정보 공개

안전보건공단, 총 260건 요약정리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등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결과가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정보로 제공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흡입독성시험 및 유전독성시험 결과 260건을 요약정리해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험결과는 연구원이 1992년부터 30여 년 동안 수행한 결



과물로, 그동안 연구보고서나 논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원은 그동안의 독성시험 결과를 시험방법별로 ‘시험 물질 및 기본정보’, ‘시험 방법’, ‘결과’ 및 ‘결론’ 등 필수 정보를 1페이지로 요약·공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험결과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PHMG.HCl(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염산염), Benzalkonium chloride(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클로라이드) 및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염화 디데실디메틸암모늄) 등의 흡입노출로 인한 건강 유해성 정보도 포함돼 있다.

이번 공개 자료는 흡입독성시험 결과 104건과 유전독성시험 결과 156건이며,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한용수 기자

겨울철 건설현장 자율점검·감독 실시

고용부, 대형사고 예방 일환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9일~12월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콘크리트를 굳

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추락위험 장소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작업 등 추락 위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을 필수 감독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위반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을 하기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